

민주, 새 지도부 출범...대선경선 레이스 불 붙었다

이재명 '느긋' 이낙연·정세균 '급박' 속 출사표 시기·경선 연기론 관건 이 지사 독주 여부, 이·정 전 총리 '호남 반격', 제3후보 등 관전 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을 내리면서 당내 대권 레이스도 사실상 시작됐다.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상 당내 지지층을 넓히는 물밑 작업을 펼쳤다. 무엇보다도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확정되면서 일부 대권 주자들의 유불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등 민주당의 대선 경선도 본격화 하고 있다.

민주당 대권 경쟁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가 지속될 것인지 여부와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의 '호남 반격', 새로운 주자의 등장에 따른 판세 변화 등이 관전 포인트로 손꼽히고 있다.

지지를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전국 각지의 조직을 확대하는 작업에 몰두 중이다. 경기도정 안팎에 포진해 있던 '이재명 사람들'도 조만간 사직

을 한 뒤 본격적으로 캠프에 뛰어든 계획이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이 지사의 전국 조직이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돼 도청 안팎에서 이 지사의 손발 역할을 했던 영입인사와 측근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청에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다"면서 "조직 강화를 통해 지지층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 독주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를 향한 전국 조직의 외형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광주·전남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 지사가 주도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 속속 가입하고, 지역 정치권에 서도 이 지사 조직의 외형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이 지사의 출사표 연 시간 표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지사는 "당이 정하면 따라야 한다"며 경선 일정 연기에 여지를 열어둔 바 있다.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는 5월과 6월 대반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이번 주 안으로 핵심 참모 회의를 통해 캠프의 향후 활동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는 생각이다. 출마 선언일은 6월 초로 저울질하고 있다. 이 전 총리 캠프 관계자는 "이 전 총리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은 그동안 재보궐선거, 전당대회 등을 치르면서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 탓도 있었다"면서 "신복지제도 구상 등 오랫동안 고민해 온 정책과 철학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다면 반전의 시간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 전 총리는 특히 '국민생활기초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발표한 8개 분야(소득·주거·돌봄·의료·문화체육·환경·교육·노

동) 정책 과제는 예비경선에 무기로 들고 나갈 주요 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생활기초 2030'은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복지제도 구상으로 내놓은 패러다임이다.

정 전 총리도 새 당 지도부가 들어서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캠프 활동에 들어간다. 캠프 참모들은 3일 첫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 로드맵을 짤 예정이다. 출마 선언일은 이날 중순께로 검토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날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 전 총리가 '범친노'의 좌장 격인 만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를 5월 23일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는 설도 나왔지만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관계자는 "일단 참모들 회의에서 대선 출마 메시지나 컨셉부터 정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최근 광주·전남을 찾아 표발을 다졌고, 젊은 경연인 등과 호프타임 등을 통해 밀박당 정서를 경정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상당

한 조직력을 확보했고, 총리 사퇴후 발빠른 행보에 따라 조직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임 전 실장의 출마 여부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86그룹'의 결집도 예상되고 있다. 실제, 이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지 대권 주자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임 전 실장의 출마가 구체화 하면 임 전 실장 측에 합류하겠다는 정치인도 상당수다.

원 조 친노인 이광재 의원도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출마 선언은 정 전 총리의 출사표 이후 일주일 가량 시차를 두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정치·경제계 원로들과 잇따라 만나며 의견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70년대생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오는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첫 테이프를 끊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향후 정국 기상도 가늠 인사청문 '슈퍼화요일'

4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6~7일 김부겸 총리 후보자

국회가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4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린다. 이어 어린이날 직후인 6~7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된다.

이번 인사청문 정국은 향후 정국 기상도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 체제가 갖춰진 뒤 치러지는 첫 공수 대결이기도 하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총 13번에 걸쳐 국내 주소를 이전에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이중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에 더해 배우자의 농지 편법 증여와 논문 표절 의혹까지 나온 상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2003년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이 강남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이 고가의 도자기 등을 무단으로 사들여 귀국하면서 도과세도 내지 않은 채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한 점, 후보자의 딸이라 임-유태머스 사태에 연루된 의혹 등을 내세워 송곳 검증을 버리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 "탈당 전력자, 합당 통해 복당해도 감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에서 탈당 전력자에게 부과하는 감점을 '합당을 통해 복당한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은 당내 경선에서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이력이 있는 후보에게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합당' 등을 통해 자동 복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호남 유일 후보 민주 서삼석, 최고위원 입성 못해 지역 정가 '호남 정치력 부재' 충격

2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의 전당대회 최고위원 탈락은 지역 정치권에 충격을 안겨줬다.

광주·전남·북의 단일후보로 전당대회에 나섰던 유일한 호남 후보가 최고위원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호남 정치력 부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를 '천문'이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이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

는 자신들의 입지만 생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서 서 의원은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서 의원은 "호남의 힘을 모아 4기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장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지만 수도권의 무관심 속에서 경선 초반부터 고군분투했다.

서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호남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며, 최고위원이 되면 호남 지킴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경선이 혼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표가 분산돼 도

'4분5월' 나눠져 당 대표 지지 몰두 당 지도부 '결집 실패' 입지 좁아져

지 못하고, 끝내 결집마저 실패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타지역 최고위원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등 '호남 결집 실패'를 불러오면서 당 지도부에서의 호남의 입지만 좁아지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 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호남을 안배한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도 있어 호남 목소리를 내왔지만, 서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당 최고위원회에 전달할 창구가 사라진 셈이다.

또한, 지역 정치권에서는 서 의원이 출마에 앞서 광주·전남·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출마 여부를 상의하는 등 사전 교감을 가졌음에도 결국은 호남 정치인들이 지역을 우선하기 보다

전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호남 정치권은 '4분5월' 나눠져 당 대표 후보 지지에만 몰두했고, 정작 호남 최고위원 후보에게는 관심이 덜했으며 되레 타지역 최고위원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번 전당대회에 대권 주자들의 유불리가 걸려 있어서 일부 대권 주자 캠프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천문의 집단 선택이 당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당 내에서 호남의 정치력이 갈 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면서 "호남 정치권의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도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도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야마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은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1년 4월 1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1년 7월 3일까지 채권 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 5. 3.
행남광물정제 주식회사
목포시 고하대로 795 (연산동) 청산인 문 옥 열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우일솔라(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덕양(이하 "을"이라 함)은 서기 2021년 05월 02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거나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 하시거나 바라며 이에 공고함
서기 2021년 05월 03일
"갑" 상 호 : 주식회사 우일솔라 (법인등록번호: 171411-0023881) 소 제 지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어룡로 25 대표이사: 조 재 영
"을" 상 호 : 주식회사 덕양 (법인등록번호: 200111-0348768) 소 제 지 : 전라남도 강진군 공동면 공동계산길 69 사내이사: 조 용 훈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이춘희(610303-XXXXXX)
• 최후주소: 광주 북구 삼정로 7, 202동 923호 (무암동, 주공아파트)
피상속인 망 이춘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년 단243호로 신청하여 2021년 4월 2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 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거나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 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5월 3일
• 상속인: 1. 정지선(820414-XXXXXX) 나주시 그린로 276, 405동 1004호 (빛가람동, 빛가람 LH4단지 아파트)
2. 정지용(881015-XXXXXX) 나주시 산포면 마성1길 77-3 1층 404호
• 신고기간: 2021. 5. 3. ~ 2021. 7. 12.
• 채권신고소: 상속인 2. 정지용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성화(400306-XXXXXX)
• 최후주소: 광주 서구 화정로 87-1, 303동 1003호(쌍촌동, 쌍촌시영아파트)
피상속인 망 김성화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년 단416호로 신청하여 2021년 4월 2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거나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5월 3일
• 상속인: 김영지(690904-XXXXXX) 광주 남구 화정로280번길 32-1 1층 (월산동)
• 신고기간: 2021. 5. 3. ~ 2021. 7. 12.
• 채권신고처: 상속인 김영지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도 길 69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光州日報 **이날**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

69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북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